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여성 인권, 사각지대

[발제자] 김재련 변호사

[일 시] 2021년 4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미투 사건은 위력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는 달리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는 왜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할까, 우리 공동체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 위력은 그물망과 같다.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위력은 종식되지 않는다. 위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권력자들에 의한 괴롭힘은 계속된다. 가해자와 관계 맺음을 했던 상급자들이 조직 내에 있는 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들었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침묵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공감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준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폭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 미투, #Me Too

- ◆ 미투란 법률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피해자가 세상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가해자에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운동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투가 촉발되었던 것은 2018년 1월 말 현직 검사의 미투였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 미투를 한 다음날 많은 공직 인사들이 흰 꽃을 들고 검사를 지지했다.
- ◆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과 안희정, 박원순 사건의 피해 사실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공교롭게도 이 세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업이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자가 내편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음모가 되기도 하고 진정성 있는 외침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미투를 정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투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미투는 폭력에 관한 문제고 인권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미투 사건에서 정치적인 잣대와 진영논리를 제거하면 문제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위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지속한 것이 그 본질이다.

◆ 위력이란 무엇인가?

- ◆ 위력이란 무엇일까. 안희정 사건에서 1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 무죄 판결문을 보면 ‘안희정은 위력을 가진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

고 판단했다.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 몸과 같다. 위력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 행위를 할 때 위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 존재 자체가 파워이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해자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은 싫지만 싫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위력 관계이다. 위력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을 거절하는 과정에도 혹시나 가해자가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것을 걱정하며 거절의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렵게 거절한 후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위력이다.

- ◆ 위력은 그물망과 같다.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위력은 종식되지 않는다. 위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괴롭힘은 계속된다. 가해자와 관계 맺음을 했던 상급자들이 조직 내에 있는 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들었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 위력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지자들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들이 있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위력 성추행은 범죄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증거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는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믿을만 한지에 관련해서 조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무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 과정은 험난하다.
- ◆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2차 피해들이 있다. 위력 성폭력의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 자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의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2차 가해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멈추라고 외쳐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이 지켜진다.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사례가 많아져야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 폭력이란 무엇인가?

- ◆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이어야 한다.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중

심에 두고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는 것이다. 회사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가해자이다. 정말 싫었지만 내가 근로해야 하는 현장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또 참는 것이 폭력이고 위력이다.

- ◆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그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성과 관련된 사건을 접했을 때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그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관점과도 연결된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런 말과 시선이 바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나면 밝게 웃을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상이 있다면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폭력을 멈추게 하는 공감의 힘

가. 성적 자기결정권

- ◆ 성폭력 피해자는 왜 제대로 공감받지 못할까? 이는 보호법익과 관련이 있다. 보호법익은 어떤 범죄를 처벌할 때 그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와 관련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살인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므로 그 피해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의 보호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범죄 피해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나. 오랜 기간 이어져온 편견

- ◆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오랜 기간 가져온 편견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런 편견에 맞서기 두려워 자신의 신상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간혹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녹음까지 할 생각을 하지?’라며 의심을 한다. 그런데 녹음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못 믿겠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린다. 녹음을 해도 문제고

녹음을 하지 않아도 문제다.

다. 폭력근절을 위한 방법

- ◆ 우리는 위력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권력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 혹시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personal space)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간에 있어서의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보다도 직장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같은 2차 가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수군거림이 있을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공감을 해주면 피해자는 그만큼 용기를 내게 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직장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로 얻는 이득이 없다. 피해자의 용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직장 구성원인 우리이다.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 성폭력 방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다

- ◆ 어떤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사회로 퇴행시킬 수도 있다.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서 사과를 할 때에도 기본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잘못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과의 출발이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재발방지 다짐까지 해주면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 있다.
- ◆ 침묵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투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뒤흔드는 2차 가해들, 이런 2차 가해의 지속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어렵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공감이 피해자의 안전이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폭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